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오 유 정¹⁾

문 혁 준²⁾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아동학 전공

본 연구는 시설아동의 개인적 변인(자아존중감, 정서지능)과 시설 관련 변인(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지역사회와의 교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적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136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변인들 간의 관계성 및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t -검정, ANOVA, 사후검정(Duncan), Pearson의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아동의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설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 거주한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설아동은 자아존중감, 정서지능이 높고,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는 시설 관련 변인인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중 성원들 간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 및 학교에서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시설아동을 양육하고 지도할 때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해야 함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교육적 방향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지역사회와의 교류

* 본 논문은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2) 교신저자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 mhyukj@catholic.ac.kr)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아동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경제 상태가 악화되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박탈당한 아동이 증가하여 시설이나 아동임시보호소에 맡겨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강경미, 2008).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보호 대상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하며(법제처, 2013), 이들 중 부모가 생존해있지 않거나 부모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아동은 일정한 시설에서 보호받고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은 부모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녀를 양육,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역할을 회피할 때, 시설에서 제공하는 대리보호서비스이다(한미현 등, 2013).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부 또는 모의 가출 및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어 가정이 아동의 성장에 바람직한 환경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박미경, 문혁준, 2009).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위로와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지지원일 것이다.

아동에게 있어서 가정, 학교, 사회는 1차적인 환경집단이다. 가정이라는 환경이 결여된 시설아동에게 학교라는 환경은 더욱 의미가 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여부는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 인간의 발달과정상 아동기의 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이며(박동열, 2008), 이는 학교에서의 성취를 결정짓게 된다(Rafferty & Shinn, 1991).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아동의 학업, 정신건강, 행동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서의 경험은 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아동의 적응을 돕는 것은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설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은 퇴소 후 사회생활 적응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시설아동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한 박경진(2011)의 제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적인 변인과 시설 관련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개인적인 변인 중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발달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어왔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 데, 높을수록 학업성취, 원만한 학교 및 사회생활, 건강한 인격형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우관계,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난다

(정수홍, 2009). 최명옥과 구자경(2013)은 시설 아동이 경험하는 부정적 환경은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여은선(2006)은 학교생활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보호 요인들 중 개인적 특성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로 이후 사회의 적응까지 이어질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시설아동의 전반적인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양식을 갖추는 것을 결정짓기도 한다(김기영, 김춘경, 2003). 예를 들어 시설아동은 시설에 머무르게 됨으로써 부모의 결여로 인해 가족 간 유대감과 애착형성이 잘 되지 않아 버림받았다는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데, 이 때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성장·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기여하는 요소일 것이다.

아울러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개인적 변인으로 정서지능을 들 수 있다. 정서지능은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 정서에 접근하여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능력, 정서와 관련된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정서적, 지적 성장을 위해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Salovey, Mayer, & Caruso, 1997)으로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의 경우 학업, 친구관계,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하는 데 비해 정서지능이 낮은 아동은 내면화 및 외면화 문제, 사회적 기술결여로 인한 친구관계의 문제 등이 나타난다(문용린, 1997).

시설아동은 시설 교사와 친구에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가 낮아 속마음을 드러내어 이해해줄 수 있는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

는 경향이 있어서(정순방, 2006), 효율적인 학습이나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이 중요하다(곽윤정, 2010). 그러므로 시설아동의 정서지능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시설아동의 성장·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을 개인적 변인으로 선정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초등학교에서의 성공에 대해 연구한 Gillies(2010)는 가장 중요한 성공원리로 '가족에게 집중하기'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생에게 있어서 가정의 환경이 매우 의미 있음을 알려준다. 시설아동은 가정이라는 환경 대신에 시설이 보완해주고 있으므로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을 나타낼 수 있다.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이란 아동의 성장과 발전의 촉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시설 교사의 양육태도와 시설 교사 및 구성원들 간의 관계, 생활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정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정선옥, 2002). 그러나 현재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시설아동의 경우 시설에서의 심리적 양육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만족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김소연(2010)은 시설아동의 정상적인 발달과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위해서 시설 내적 생활뿐만 아니라 시설 외적 생활 즉,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고 하였다.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시설아동이 지역사회자원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시설 관련 변인 중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다. 지역사회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의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 시설아동의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시설 관리자 입장에 관한 것으로 시설아동이 지각하는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심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경험이 많이 부족하며 이러한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이현옥, 2001).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시설병에 노출되기 쉽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최상억, 2001). 따라서 지역사회와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가는 것이 시설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더불어 Hoffman, Dahlman과 Zierdt(2009) 그리고 Rieg와 Marcoline(2008)은 학교에서의 리더십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에서도 편견을 가지지 않는 동등한 시선으로 시설아동을 대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강조되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관련 변인으로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해보면, 시설아동이 가지는 사회·정서

적 문제는 앞선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드러나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부족하다. 특히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다양한 변인들을 통해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적응적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아동양육시설의 목적에 따라 학교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아동의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 보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시설아동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시설아동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시설거주기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시설아동의 개인적 변인(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시설 관련 변인(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지역사회와의 교류)은 학교생활적응과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3. 시설아동의 개인적 변인(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시설 관련 변인(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지역사회와의 교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선행연구 고찰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시설아동은 비효율적인 학습습

관, 결여된 학업성취동기와 목표, 낮은 수업 이해도, 친구관계의 어려움, 소외감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이 떨어진다고 하였으며(성미영, 이순형, 이강이, 2001), 교우관계, 학교규칙, 학교수업에 대한 학교부적응이 나타난다고 하였다(허상환, 2003). Rutter(1979)의 연구에서도 시설아동은 주의가 산만하고 사회성이 부족하며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문제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시설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을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강은영, 2002; 김현용, 2002; 이향, 2005).

한편 시설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을 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경진, 2011; 이영만, 2002; 황수연, 2006), 학년에 따라서는 고학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진, 2011; 이영만, 2002). 시설거주기간과 관련해서는 시설 교사와 장기간 생활한 아동들이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고 나타났다(강은영, 2002).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개인적 변인.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변인으로서는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시설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김보람, 이경숙, 박진아, 2007; 이강훈, 2003). Mash와 Wolfe(1990)에 따르면, 시설아동은 부모와의 분리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타인과 안

정적인 애착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강훈(2003)은 시설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를 원만히 형성하지 못하고 행동과 생활의 적응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다. 박경진(2011)은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설아동의 정서지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시설아동은 정서적 안정감이 떨어지며 자신의 정서에 대해서 관심이 적고 부정적인 정서 측면을 가진다고 하였다(이지영, 2011; Terwogt, Schene, & Koops, 1990). 또한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서지능이 낮게 나타났으며(권세은, 이순형, 2002; 홍수현, 김경희, 2005), 정서인식과 표현 및 감정이입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박미경, 문혁준, 2009).

시설 관련 변인.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관련 변인으로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시설아동이 심리적 양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며(이서정, 2001; 정선옥, 2002), 시설환경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환경에 적응도가 높으며, 시설의 생활환경 중 시설 교사의 태도가 학교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박영준, 1996). 또한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높

은 학교생활적응을 보였으며(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1), 가족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설 교사의 지지는 시설아동의 학업성적, 학업적응 정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지영, 2011).

한편 시설아동의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김소연, 2010; 이지영, 2011). 아동양육시설에서 지역사회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원봉사자의 지지가 있어도 학교생활의 충분한 지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김소연, 2010), 시설이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된다면 시설아동은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저해 받으며, 시설에 의존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우희경, 2002).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의 아동양육 시설 중 7곳을 선정한 후, 만 10세부터 12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시설아동 약 13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빠른 사춘기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구 변인들을 측정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동은 설문내용을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황진애, 김영태, 이주연, 2007), 자기기입식 설문에 응

답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연구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시설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 58명(47.2%), 여아 65명(52.8%)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4학년 30명(24.4%), 5학년 53명(43.1%), 6학년 40명(32.5%)으로 나타났다. 시설거주기간은 4년 이상~8년 미만이 48명(39.0%)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아동의 부모생존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부모 모두 안 계신 아동이 59명(47.9%)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시설에서 친형제와의 동거를 조사한 결과, 동거하는 아동 40명(32.5%), 그렇지 않은 아동 83명(67.5%)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123)

구분		빈도	%
성별	남아	58	47.2
	여아	65	52.8
학년	4학년	30	24.4
	5학년	53	43.1
	6학년	40	32.5
시설 거주기간	4년 미만	42	34.1
	4년 이상~8년 미만	48	39.0
	8년 이상	33	26.8
부모 생존여부	모두 생존	28	22.8
	한 분만 생존	36	29.3
	모두 안 계심	59	47.9
친형제 동거여부	동거	40	32.5
	동거하지 않음	83	67.5

2. 연구도구¹⁾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이규미와 김명식(2008)이 개발한 척도를 은선경(2009)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8개 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자기보고형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의 가치, 자신감, 만족도, 자신에 대한 존중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하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도록 고안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박용두(2008)가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5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자기보고형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7로 나타났다.

정서지능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문용린(1999)이

개발한 표준화된 청소년용 정서지능 척도를 수정·보완한 김현준(2007)의 것을 이용하여 본 연구자가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능력의 발휘정도’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덩달아’를 ‘함께’로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척도는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 사고촉진, 정서활용, 정서조절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4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자기보고형이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정서인식 및 표현 .78, 감정이입 .83, 사고촉진 .85, 정서활용 .78, 정서조절 .72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시설아동이 지각한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김형태(1989)가 제작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 척도를 수정·보완한 정선옥(2002)의 것을 이용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시설 보모님’이라고 되어 있는 문항의 경우 ‘시설 선생님’으로 바꾸어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한 것을 말한다. 또한 5개 하위요인인 성취, 공유활동, 성원들 간의 관계, 개방, 자율로 구성되어 있는 척도를 본 연구에서는 개방과 자율을 하나의 하위요인으로 묶어서 사용하였다. 즉, 성취, 공유활동, 성원들 간의 관계, 개방·자율의 총 4개 하위요인이며, 총 30문항이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자기보고형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의 양육환경을 긍정적인

1) 본 연구의 각 도구별 문항 내용은 석사학위논문의 부록에 포함되어있음.

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하위요인별로 는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 환경을 성취적, 개방적, 자율적, 친애적으로 지각하며, 가족 성원들 간의 태도가 긍정적이며 응집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성취 .77, 공유활동 .73, 성원들 간의 관계 .89, 개방·자율 .69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와의 교류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측정하기 위해 감정기, 진재문(1998)의 시설의 사회화 척도를 최미현(2007)이 청소년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다시 재구성한 김소연(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 하위요인인 처우의 사회화, 기능의 사회화, 운영의 사회화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설아동이 지역사회자원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처우의 사회화 요인을 사용하여 지역사회와의 교류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문항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수는 총 6문항이며, 아동들의 중간집중 경향성을 피하기 위해 5점 리커트 척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자기보고형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아동이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에 재학 중인 4, 5, 6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조사방법의 적절성과 소요시간, 문항 이해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에서 아동이 질문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아동학 전문가 3명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이루어졌으며, 서울, 경기 소재 아동양육시설 7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4, 5, 6학년 초등학생 시설아동 136명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의 아동에게 동의를 구한 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 서울, 경기 내의 아동양육시설에 전화 접촉하여 시설장 또는 담당직원의 허락을 받은 곳을 선정하였으며,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 또는 교사와 대면하여 연구의 목적과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간접적으로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회수한 질문지 중 문항에 대한 응답이 누락됐거나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36부(91%)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13부를 제외한 12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각 도구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시설아동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그리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ANOVA, 사후검정(Duncan) 및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SD = .5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학교생활적응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설거주기간($F = 5.86, p < .01$)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정(Duncan)을 실시한 결과, 시설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아동($M = 3.16, SD = .49$)이 4년 미만의 아동($M = 2.77, SD = .51$)보다 높게 나타났다.

III. 결과 및 해석

1. 시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시설아동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 시설거주기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시설아동의 성별($t = -2.25, p < .05$)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아($M = 3.05, SD = .48$)가 남아($M = 2.85,$

2. 시설아동의 개인적 변인, 시설 관련 변인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

시설아동의 개인적 변인인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 그리고 시설 관련 변인인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학교생활적응과 어떠한 상관을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변인들 간 상관계수는 .01~.67의 범위를 지니며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시설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N = 123$)

집단	변인	학교생활적응			
		<i>n</i>	<i>M</i>	<i>SD</i>	<i>t/F</i>
성별	남아	58	2.85	.52	-2.25*
	여아	65	3.05	.48	
학년	4학년	30	3.04	.50	1.08
	5학년	53	2.88	.50	
	6학년	40	2.98	.52	
시설거주 기간	4년 미만 ^a	42	2.77	.51	5.86**
	4년 이상~8년 미만 ^{ab}	48	2.97	.47	
	8년 이상 ^b	33	3.16	.49	

주. 영문자는 사후검정(Duncan) 결과임($a < b$).

* $p < .05$. ** $p < .01$.

표 3.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 ($N = 123$)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자아존중감		1													
정서 지능	2. 정서인식 및 표현	.20*	1												
	3. 감정이입	.37***	.49***	1											
	4. 사고촉진	.21*	.32***	.22*	1										
	5. 정서활용	.24**	.33***	.27**	.61***	1									
	6. 정서조절	.23*	.30**	.26**	.29**	.21*	1								
	7. 전체	.36***	.72***	.65***	.72***	.73***	.59***	1							
시설의 심리적 양육 환경	8. 성취	.01	.33***	.19*	.17	.20*	.12	.30**	1						
	9. 공유활동	.01	.16	.22*	.19*	.16	.08	.24**	.31***	1					
	10. 성원들 간의 관계	.24**	.42***	.24**	.25*	.40***	.24**	.46***	.25**	.22*	1				
	11. 개방·자율	.13	.25**	.22*	.23*	.25**	.14	.32***	.24**	.30**	.29**	1			
	12. 전체	.14	.43***	.32***	.31***	.37***	.22*	.49***	.67***	.71***	.66***	.64***	1		
13. 지역사회와의 교류		.22*	.32***	.34***	.17	.23**	.24**	.38***	.28**	.03	.37***	.26**	.34***	1	
14. 학교생활적응		.41***	.59***	.57***	.30**	.35***	.43***	.65***	.42***	.20*	.59***	.33***	.57***	.56***	1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시설아동의 개인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41, p < .001$).

시설아동의 정서지능은 학교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 = .65, p < .001$), 하위요인별로 보면 정서지능 중 정서인식 및 표현($r = .59, p < .001$), 감정이입($r = .57, p < .001$), 사고촉진($r = .30, p < .01$), 정서활용($r = .35, p < .001$), 정서조절($r = .43, p < .001$) 모두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어서 시설아동의 시설 관련 변인인 시설

의 심리적 양육환경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 = .57, p < .001$), 하위요인별로 보면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중 성취($r = .42, p < .001$), 공유활동($r = .20, p < .05$), 성원들 간의 관계($r = .59, p < .001$), 개방·자율($r = .33, p < .001$) 모두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지역사회와의 교류에서도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56, p < .001$).

3. 시설아동의 개인적 변인, 시설 관련 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시설아동의 개인적 변인, 시설 관련 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에 앞서 다중 공선성의 가중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VIF 지수는 10 이하(1.00~1.87)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

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bin-Watson 계수도 1.72~1.90로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였다.

1단계에서는 시설아동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 시설거주기간을 투입하여 이들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 특성의 영향력을 미리 살펴보고 각 독립변인과 매개하여 나타날 수 있는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2단계에서

표 4. 시설아동의 개인적 변인, 시설 관련 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 = 123)

독립변인			종속변인	학교생활적응					
				1단계		2단계		3단계	
				<i>B</i>	β	<i>B</i>	β	<i>B</i>	β
일반적 특성	성별 ^a		.19	.19 [*]	.07	.07	-.00	-.00	
	학년		-.03	-.05	-.02	-.02	-.02	-.03	
	시설거주기간		.19	.29 ^{**}	.09	.14 [*]	.05	.08	
개인적 변인	자아존중감				.22	.18 [*]	.19	.15 [*]	
	정서 지능	정서인식 및 표현			.31	.34 ^{***}	.16	.18 [*]	
		감정이입			.23	.25 ^{**}	.19	.21 ^{**}	
		사고촉진			-.03	-.03	.00	.00	
		정서활용			.08	.09	-.03	-.04	
		정서조절			.15	.15 [*]	.13	.13 [*]	
	시설 관련 변인	시설의	성취				.19	.16 [*]	
심리적		공유활동				-.01	-.01		
양육		성원들 간의 관계				.28	.25 ^{***}		
환경		개방 · 자율				.05	.04		
			지역사회와의 교류			.24	.23 ^{**}		
<i>F</i>			5.78 ^{**}		15.76 ^{***}		18.45 ^{***}		
adj. <i>R</i> ²			.11		.52		.67		
Δ adj. <i>R</i> ²					.41		.15		

주. ^a가변수(남아 = 0, 여아 = 1).

* $p < .05$. ** $p < .01$. *** $p < .001$.

는 시설아동의 개인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 3단계에서는 시설 관련 변인인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과 지역사회와의 교류 변인을 투입하였다.

시설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1단계에서 설명력은 11%였으며, 2단계에서 개인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의 증가는 41%로 나타났고, 총 설명력은 52%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과 지역사회와의 교류 변인 투입에 의해 설명력이 15% 증가하여, 총 설명력 67%로 나타났다.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시설 관련 변인인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중 성원들 간의 관계($\beta = .25, p < .001$)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어서 시설 관련 변인인 지역사회와의 교류($\beta = .23, p < .01$), 시설아동의 개인적 변인인 정서지능 중 감정이입($\beta = .21, p < .01$), 정서인식 및 표현($\beta = .18, p < .05$), 시설 관련 변인인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중 성취($\beta = .16, p < .05$), 시설아동의 개인적 변인인 자아존중감($\beta = .15, p < .05$), 그리고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beta = .13, p < .05$) 순으로 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1단계와 2단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시설아동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시설거주기간의 영향력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아동양

육시설의 4, 5, 6학년 초등학생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아동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 시설거주기간에 따라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학교생활적응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정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학교 태도를 지닌다는 Buzhigeeva(2004), Sullivan, Riccio와 Reynolds(2008)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박경진, 2011; 이영만, 2002; 황수연, 2006)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학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김선훈(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기 청소년기의 초등학교 고학년의 아동이 겪는 환경의 변화는 다른 환경에 대한 적응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가정아동과는 다르게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는 시설아동은 시설에 언제 입소하였는지 또는 시설에 얼마나 거주하였는지 등의 시기상의 문제까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설아동의 시설거주기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시설에서 생활한 기간이 8년 이상인 아동이 4년 미만인 아동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설 교사와 장기간 생활한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한다고 한 강은영(200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데,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함께 하는 시설 교사와의 관계가 오래 유지될 때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은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거주 기간 동안 적응하게 되는데, 장기간 생활할수록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시설아동의 시설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시설에서 아동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설아동의 개인적 변인(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시설 관련 변인(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지역사회와의 교류)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김기예와 이소은(2005), 박경진(2011), 홍영미(20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시설아동이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적응에 도움이 됨을 시사하였다.

시설아동의 정서지능도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인 Betts와 Rotenberg(2007)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은 대인관계가 좋고, 학업성적이 높으며, 학교생활을 재미있어 하고, 또래관계가 좋으며 학업수행능력이 높았다고 한 결과와 박미경과 문혁준(2009)의 연구에서 시설아동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

다고 한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즉, 정서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시설아동의 정서를 긍정적인 능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학교생활에서 올바른 적응을 고양시키도록 도와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시설 관련 변인인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도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시설아동이 시설의 양육환경을 자신을 복돋아주고 편안한 곳으로 지각할 때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았던 정선옥(2002)의 연구, 그리고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높은 학교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유안진 등(200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시설아동의 경우 가정을 대신하는 곳이 바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설의 교사 또는 구성원들이 아동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격려를 해주고, 할 수 있다는 끈기와 자신감을 실어주는 것이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적응을 이끌어주는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시설아동이 지각한 시설의 사회화 즉,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는 김소연(201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시설에서 아동에게 제공하는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잦을수록 학교생활의 전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가족, 친척, 친구 등과의 만남과 쇼핑, 식사, 취미 등의 활동 등의 활발

한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시설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여 개인적 변인과 시설 관련 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시설 관련 변인인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중 성원들 간의 관계요인이었으며, 이어서 지역사회와의 교류, 개인적 변인인 정서지능 중 감정이입, 정서인식 및 표현, 시설 관련 변인인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중 성취,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의 하위요인인 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Buysse(1997)의 연구에서 아동의 지각과 관련된 주관적, 심리적 시설 환경이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와 노병일, 김주연(2008)의 연구에서 시설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에 적응하는 정도가 낮다는 결과, 박영준(1996)의 연구에서 시설아동이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접목해보았을 때,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함께 지내는 성원들 간 사이가 친밀하고, 이들의 응집력이 강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이는 데 시설의 전체적인 환경 중에서도 함께 생활하는 성원들 간의 관계와 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시설 관련 변인인 지역사회와의 교

류에서도 높은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시설아동이 제공받는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할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이지영(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시설이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지역사회자원을 잘 활용하여 시설아동의 지지체계의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시설아동의 개인적 변인 중에서는 정서지능 중 감정이입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시설아동의 정서지능 중 감정이입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박미경과 문혁준(200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바이다. 다른 사람이 입장이 되어보는 감정이입 능력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한 석주영(2003)의 연구에 따라 정서지능은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을 느끼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고려하여 행동할 수 있는 감정이입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아동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시설거주기간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적 변인과 시설 관련 변인의 투입으로 인해 소멸되었다. 이들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의 변인들이 매개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에 위치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표집수가 제한

적이었고, 모든 시설아동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로서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대상의 연령대가 아닐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대상을 표집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시설아동이 스스로 지각한 보고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층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시설 담당 교사와 같은 직접적인 관계자의 보고 또는 관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설 관련 변인에 포함된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도 다르게 지각하였을 수 있다. 추후 같은 시설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응답을 시설별 특징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통계방법을 통해 각 시설 간 영향력의 차이를 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실시한 조사로써 조사시기와 맞물려 시설아동이 겪은 경험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시설아동의 장기적인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설아동이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학교생활적응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차별, 왕따, 주변의 시선 등의 문제점을 추가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적 변인과 시설 관련 변인 모두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시설과 학교에서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시설아동을 양육하거나 지도할 때 아동의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진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시설과 학교에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아동의 주변 환경에서 고양시킬 수 있는 지지체계가 마련해주어야 하며, 시설아동이 지역사회자원을 더욱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시설 및 학교에 교육적 방향성 및 기초자료를 제공·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감정기, 진재문 (1998). 통영·거제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통영·거제 지역 연구, 40, 269-308.
- 강경미 (2008). 한국의 가족변화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보육원)의 실태와 기독교상담의 역할. 성격과 신학, 46, 219-234.
- 강은영 (2002). 시설아동이 지각한 보육사의 양육태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윤정 (201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동 복지시설 아동의 우울성향, 자아상,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7(1), 1-14.
- 권세은, 이순형 (200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

- 가정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 능력의 비교. 아동학회지, 23(2), 107-120.
- 김기영, 김춘경 (2003). 사회적 기술 증진 프로그램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복지학, 16, 7-36.
- 김기에, 이소은 (2005). 장애부모 아동과 일반 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학교적응, 한국 생활과학회지, 14(1), 35-46.
- 김보람, 이경숙, 박진아 (2007). 발달심리학회 구두발표: 시설보호아동의 지능 및 정서, 행동특성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 연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28-429.
- 김선훈 (2002). 시설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학교 적응에 관한 비교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연 (2010). 시설의 사회화와 사회적지지가 시설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용 (2002). 보호시설아동과 아동복지법. 서울: 소화.
- 김현준 (2007).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사회지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태 (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병일, 김주연 (2008). 시설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5, 107-126.
- 문용린 (1997). 종합진로·진로적성검사. 서울: 대교출판부.
- 문용린 (1999). 인성교육을 위한 정서지능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대 논총, 59, 31-98.
- 박경진 (2011). 시설보호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동열 (2008). 시설학생과 결손학생의 학교적응 분석: 서울시 강동구 지역 학생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 문혁준 (2009).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 가정아동의 정서지능, 사회적 능력,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7(2), 1-13.
- 박영준 (1996). 육아시설아동의 생활환경적 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두 (2008). 사회적지지, 자존감, 진로포부간의 관계 모형 검증: 집단자존감과 개인자존감의 매개 역할.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제처 (2013). 아동복지법(시행 2013. 06. 19).
- 석주영 (2003). 시설보호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특성 및 상호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15-26.
- 성미영, 이순형, 이강이 (2001). 시설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초기 학교적응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9(1), 53-64.
- 여은선 (2006). 시설보호청소년의 학교적응 향상요인에 관한 연구: 적응유연성의 보호요소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희경 (2002). 아동복지시설 지역사회와의 교류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1). 문장완성검사를 통한 시설 청소년의 자아 및 환경 지각. 한국아동복지학, 12, 42-76.
- 은선경 (2009).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강훈 (2003). 육아시설퇴소예정아동의 자립지원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미, 김명식 (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 이서정 (2001). 생활 시설 아동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만 (2002). 학교생활적응도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2011). 시설보호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변인 연구. 위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향 (2005).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옥 (2001).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학교성적을 위한 사회사업서비스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옥 (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수홍 (2009).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방 (2006). 시설청소년의 욕구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옥, 구자경 (2013).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신체상중심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20(3), 497-522.
- 최미현 (2007). 아동양육시설 생활아동의 시설사회화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익 (2001). 노인복지시설의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 문혁준, 강희경, 공인숙, 김상희, 안선희 . . . 천희영 (2013). 아동복지(제3판). 서울: 창지사.
- 허상환 (2003). 양육시설아동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수현, 김경희 (2005). 시설보호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정서지능과 대인불안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9(2), 277-296.
- 홍영미 (2010). 시설보호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행동문제와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7(12), 187-209.
- 황수연 (2006). 시설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태도와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진애, 김영태, 이주연 (2007). 학령기 아동의

- 읽기이해력 발달. 언어청각장애연구, 12(3), 412-428.
- Betts, L. R., & Rotenberg, K. J. (2007). Trustworthiness, friendship and self-control: Factors that contribute to you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6(5), 491-508.
- Buyse, W. H. (1997). Behavior problems and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0(6), 645-659.
- Buzhigeeva, M. I. (2004). Gender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the primary stage of instruction. *Russian Education & Society*, 46(4), 76-88.
- Gillies, J. A. (2010). *Success in primary school, success in schools*. Washington, DC: AED Global Education Center.
- Hoffman, P., Dahlman, A., & Zierdt, G. (2009).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in partnership: A 3-year journey of action and advocacy to bridge the achievement gap. *School-University Partnerships*, 3(1), 28-42.
- Mash, E. J., & Wolfe, D. A. (1990). *Abnormal child psychology*. Belmont, CA: Wadsworth CENGAGE Learning.
- Rafferty, Y., & Shinn, M. (1991). The impact of homelessness on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46(11), 1170-1179.
- Rieg, S. A., & Marcoline, J. F. (2008). *Relationship building: The first "R" for principals*. Paper presented at the Easter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tter, M. (1979). Maternal deprivation, 1972-1978: New findings, new concept, new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0(2), 283-305.
- Salovey, P., Mayer, J. D., & Caruso, D. (1997). The positive psycholog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159-171). Oxford University Press.
- Sullivan, J. R., Riccio, C. A., & Reynolds, C. R. (2008). Variations in students' school - and teacher - related attitudes across gender, ethnicity, and age.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35(3), 296-305.
- Terwogt, M. M., Schene, J., & Koops, W. (1990). Concepts of emotion in institutionalize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7), 1131-1143.
- 1 차원고접수 : 2014. 07. 09.
수정원고접수 : 2014. 08. 14.
최종게재결정 : 2014. 09. 04.

A Study on Variables associated with Institutionalized
Children's School Life Adjustment:
Focused on the Children's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Institutional Psychological Nurturing Environment,
and Interaction with Local Community

Oh, You Jung

Moon, Hyuk Ju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ersonal variables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stitution variables (institutional psychological nurturing environment, interaction with local community) associated with institutionalized children's school life adjustment and to provide data that can be used to help the school life adjustment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The participants comprised 136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e 4th, 5th and 6th grades who lived in a school's child care institute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ost-hoc analysis (Duncan),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girls had higher degrees of school life adjustment than the boys. Moreover, institutionalized children who had lived for longer periods in an institution had higher school life adjustment levels than other childre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showed that a higher degree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existence of a positive institutional psychological nurturing environment, and active intera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level of school life adjustment. Third, the strongest predictor of school life adjustment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was the variable of 'relationships between members' of institutional psychological nurturing environment of institu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various variables be considered to nurture institutionalized children.

Keywords: institutionalized children's school life adjustment,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institutional psychological nurturing environment, interaction with local community